

출가·열반절 기념 지상법석

# 사는 것도 출가입니다”

### “매일매일 출가한다는 생각으로 출근하고 회사일하고 가사 돌보는 것이 열반의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진할 수행자를 정하기 위해 백일 특별정진을 한다는 안내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하안거가 다섯번이 안돼 특별정진에 끼일 수가 없었으나 어찌어찌 도움을 받아 28명의 정진자 사이에 들 수 있었지요. 그 정진이란 하루 3시간 자고 21시간을 참선하는 힘든 과정이었는데 22명이 회향했습니다.

그후 관음스님과 제선스님이 두문불출 6년정진에 들어갔고 나는 동구불출 정진에 들어가 3년을 거친 후 두문불출 6년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그 긴 시간을 긴 줄도 모르고 정진 했는데 거처서 내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면 수행자는 대중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후로도 해

기차나 배는 저 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것들을 움직이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운전사, 조종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이 움직이니까. 다리나 팔 입 손가락 이러한 것들은 저 혼자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움직이라고 운전하고 있거든요. 내 몸의 운전수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내는 일이 곧 수행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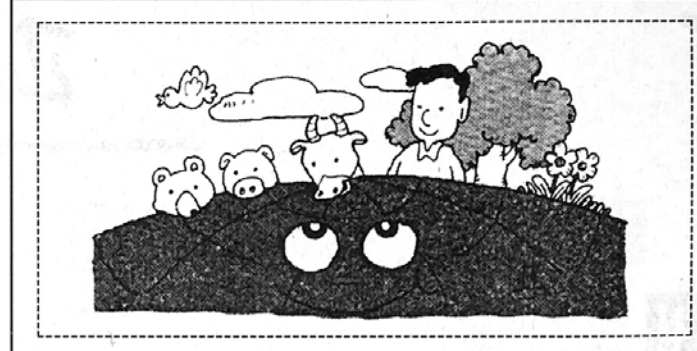
나는 출가하여 두문관에 들어가기전에 성철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늦각이라 불리는 들었어도 수행은 아직 첫걸음을 걷는 형편이었으니 6시간동안 3천배를 하고나서

를 벗어 던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열반입니다. 또 육신을 벗고 법신으로 진리의 세계에 들어 간다는 의미도 있으니 부처님께서 80세에 육신을 버리신 일을 열반에 드셨다고 얘기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 후세에 진리의 법을 파신 여러 스님네들의 죽음도 이런 깨달음이 열반이라고 얘기 합니다. 다시말해 열반은 법신이 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진리의 법 그 자체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니 출가의 완성이 곧 열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가를 열반으로 완성 시키는 것, 이것 역시 수행의 길에서 이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거듭 출가할 때의 굳은 원력

意通)이라고 하는데 결립이 없이 다닐수 있는 것을 타심통(他心通)은 남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다섯가지의神通을 얻고나면 마지막으로 누진통(漏盡通)을 얻게 되는데 누진통은 번뇌를 끊고 자유자재의 법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기란 쉽지가 않겠지요.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어렵다는 생각에 묶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한가지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안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두문관에서 수행한 얘기를 했지만 그 9년이란 시간을 정진하며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회향을 못했을 것입니다. “정신일도하사불성”이란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정신을 흐트리지 않고 철저히 가다듬으면 금강석도 꿰뚫는다고 하였습니다. 6신통을 얻어 법신을 이루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로 모아진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어렵고 힘겨운 문제는 따질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얘기를 듣는 분이 재가불자라면 출가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매일매일 출가하란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출가하는 마음은



생명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개개인의 성품이나, 문화, 역사, 사회 환경, 종교 등에 따라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예리히 프롬은 그의 책에서 테니스와 바쇼의 시를 비교한 다. 테니스는 “갈라진 바람에 핀 한 송이 꽃/ 나는 너를 틀 사이에서 뽑아 따낸다/ 나는 너를 이처럼 뿌리채 내 손에 들고 있다/ 작은 꽃 한 송이/ 그러나 내가 너를 뿌리와 너의 모든 것을/ 그 모두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이라고 쓴다. 환원주의적이며 너와 나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이 시는 생명을 해체하여 진리를 얻으려는 자세를 보여 준다. 이러한 자세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서구의 자연과학이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게 된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유기체적 전체로서의 하나의 세계는 결코 이렇게 부분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다.

우리의 문제가 탐욕에서 시작되었다면 이의 해결은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생명을 존중하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시대의 문명에 불교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오성만으로 작동되었던 우리

게 존중되어야 한다. 이 존중의 철학이 퇴색한 근세의 역사는 이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난제를 던져 주기에 이르렀다. 이에 지남

스님은 “환경운동이라는 것도 자연과 인간에게 위협되거나 아우성이지만 환경이란 말도 인간 중심의 서구적 사고 방식에서 나온 말”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체대비의 자각으로 유정과 무정을 차별없이 사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탐욕에서 비롯되었음에, 프롬은 더 많이 소유하여서 아니라 충실히 존재함으로써, 불교적으로 말하면 여여하게 존재함으로써 기쁨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문제가 탐욕에서 시작되었다면 이의 해결은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생명을 존중하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시대의 문명에 불교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오성만으로 작동되었던 우리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63  
양형진  
생명의 세계관

## 내몸의 운전수인 마음을 알아내는 공부가 수행 출가서원 한결같이 간절하게 지키면 열반만나

인사 통도사당 대웅처소에서만 수행을 했지요.

출가에 대한 얘기를 이어 보도록 합시다. 출가는 도를 이루기 위해 수행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것인데 그 성스러운 것은 간담없는 수행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출가의 본래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출가할 때의 크고 장한 원력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출가할 때의 마음이 사라진 곳에는 의당 싹되고 번잡한 욕심이 들어차기 마련이니까요. “도가 높을 수록 마가 성한다”는 경계의 말씀이 있거니와 싹된 것이 들이칠 수 없도록 항상 마음을 다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출가할 때의 그 굳은 서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미 얘기했듯 출가의 목적은 견성성불입니다. 견성성불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보고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는 것 여기에 성불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비행기나 기차 배를이 있어 우리는 편리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비행기로 한시간이 채 안걸리고 기차로도 4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나

성철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적게 먹고 적게 자고 돌아다니지 말고 책 보지 마라’고 일러 주시더군요. 나는 아직까지 그 네가지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생각할수록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식탐과 수면욕을 억제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끊는 공부이고 돌아 다니지 않는 것은 이런저런 경계를 만들지 않음으로 번뇌와 망상을 차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을 보지 말라는 것도 망상을 지어내는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인데 마음 닦는 공부에는 아는 것이 많은 것도 큰 병에 속하거든요. 많이 알면 아는만큼 어려워 지는 것이 그 공부입니다. 아무튼 늦은 출가였으나 처음 받은 그 네가지 가르침을 평생 버리지 않고 지켜오다 보니 그런 실천이 수행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출가의 길에서 세운 굳은 서원으로 깨달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정진이 없다면 출가의 의미도 햇살 앞의 이슬처럼 허무해집니다.

열반이란 내 마음 자리를 환하게 밝혀 알아서 고요하고 고요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생사윤회의 증생과

을 잃지 말라고 얘기 한 깨달음을 이제 확실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겁니다. 경건주간이라고 해서 짧은 기간을 정해두고 임시로 출가를 해서 수행하는 불자님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런 분들도 출가의 원력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열반의 법신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행은 나이와 시간에 따라 이뤄지고 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뇌망상에 그달리지 않고 일심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속명통과 천이통, 천안통, 신족통, 타심통을 얻는다고 합니다. 속명통(宿命通)이란 과거세의 모든걸 알게되는 것이고 천이통(天耳通)은 세상에서 인간의 귀로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것이며 천안통(天眼通)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신족통(神通通)은 여의통(如

“열반이란 출가의 완성입니다  
깨달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정진이 없다면 출가는 햇살앞  
이슬처럼 허무해 집니다”

로 출근하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회사일을 하라는 겁니다. 가사일을 하는 주부라면 매일매일 출가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하고 학생은 출가하는 마음으로 학교로 향하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생사’ 두 글자를 붙이고 정진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고 죽는 고통을 벗어 대자유의 법신을 이루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가하여 내일 열반에 드려는 욕심을 버리지 말고 오늘 출가하고 내일 또 출가하여 열반의 문으로 다가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면 출가하는 이 자리가 열반의 기쁜 자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 한송이 국화에도 35억년 전역사 담겨 불교는 인간·자연 구별없는 생명 철학

한편 바쇼는 “가만히 살펴보니/ 냇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 울타리 옆에!” 라고 쓰고 있다. 그 뿐이다. 그저 그렇게 거기 한 송이의 꽃, 하나의 우주가 열려 있음을 그는 보고 있음이다. 여여함의 미라고나 할까.

무기물에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는 유기물과 단백질, 원시적인 자기 복제 체제를 거쳐 최초 생명으로 연결되었다. 여기서 생명 진화의 역사가 시작되어 결국에는 자기 성찰이 가능한 그래서 깨달음의 가능성이 열린 인간이라는 생명종까지 자살에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인간 모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일체동근의 다른 모든 생명과 중중무진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이아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 보았듯이, 적어도 지구 전체는 하나의 생명이다. 테니스의 시에서와 같이 나와 너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처럼 단절된 실체가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를 장외의 교수는 온생명이라고 부르면서,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는 철학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다 같이 존중하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바로 나 자신이 법계연기의 중심이듯이, 다른 모든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모두는 다 같이 평등하

의 세계를 이성의 세계로 그리고 더 나아가 여여함의 세계로 고양시키는 작업은 이제 우리를 모두의 몫이다.

부처님 소책자가 그렇게 울며 피운 한 송이의 국화꽃, 거기에는 35억년의 전역사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잎파리의 꽃에서 장엄함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김용정 교수는 한 송이의 꽃, 한 포기 꽃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한 포기의 꽃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은 어디에서도 가능하지 않다. 관세음보살이 어찌 법당 안에만 계시는 것인가?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 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 그늘에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눈이 부리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포수는 한 덩이 남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박남수의 시 (새)를 보여 부족한 사람의 부족한 글을 여기서 마친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용 법사의 세 번째 책 출간

힘껏 남을 먹여 살리는 마음을 내면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정신이 맑아지면 우주와 통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본연의 우주물건이 그냥 우주화된다. 원래 동서남북이 없는 것인데 그제 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 그 주장하는 몸이 주인이 되고 우주 지배는 그만 간 곳이 없어질 것이다.

여몽환포영(如夢幻影) -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세상사를 설명하고 무엇이냐 결정은 내리면서 지혜를 가로막는 일에 열심인 것이 인간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이닌가. <백 선생님 말씀>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용 법사의 첫 번째 책 신국판 29쪽 33,0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로를 한걸음 한걸음 디디는 모든 길 가는 이들의 고통과 그 해탈을 위하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김재용 법사의 두 번째 책 신국판 279쪽 33,000원

도서출판 용화/ 경복영인로 흥해읍 성곡 2동 1369/ 전화 (052)61-2231/ 서울 인양사 (02)72-0111

만해교역사/ 불교서적출판 운주사/ 전화 (02)720-9372, 9373 팩스 (02)723-0616

금강진 독송회/ 서울 혜화빌딩 (02)42-0172/ 포항 우원동 법당 (052)47-0323/ 포항 금강진사 (052)61-2231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자,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 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 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합본호 1집: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가 격: 50,000원 (발송비 별도)  
■구입신청: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02)737-8881 팩스:(02)737-0697

법 밖의 생활학 · 현대학 · 세계학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